

한양증권, 안정적 성장세에도 매각행... “대학·의료원 재정 악화”

대학 등록금 동결에 재정운영 어려워
의료원 노후화·전공의 파업 겹쳐

노조 “최대주주 한양학원 문제
책임 있게 매각 관련 해결 요구”

‘알짜배기’ 한양증권이 설립 68년 만에 공개 매물로 나와 다양한 인수후보군이 거론되는 등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던 만큼 한양학원의 어려움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한양증권 노동조합 측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전날 한양학원의 한양증권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한양학원은 지난 15일, 19일에도 진행 상황을 공시해왔다. 지난 9일 한양학원은 이사회에서 한양증권 주식 151만 4025주 매각을 결정했다. 143만 7590주(11.29%)를 주당 1만 803원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7만 6435주(14.56%) 전체를 1만 3483원에 매각한다. 매각 후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기존 16.29%에서 4.99%로 줄어든다.

한양증권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KCGI, 우리투자증권, OK금융그룹 등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한양증권

다양한 인수 후보군이 언급됐다. 실적 상승세를 유지해 온 알짜 증권사가 매물로 나온 만큼 시장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강성부펀드’로 불리는 KCGI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히고 있으나, 이외에도 3~4군데에서 입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결정에 대해 한양증권 노조는 강력한 반대의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양증권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열의와 희생으로 68년간 이어온 우리 회사가 오로지 최대주주 한양학원의 문제로 새로운 최대주주를 찾

아 매각으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가 회사와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책임에서 기인한 만큼 우리는 한양학원이 책임 있게 매각 관련 문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의 미래와 장기 성장, 고용 안정 등 근로조건 유지 발전이 담보될 확실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처분배경에는 한양학원의 재정 악화가 두드러져 보인다. 학원 측은 21일 공개된 이사회 의사록

을 통해 “대학의 경우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원도 기존 병원시설 노후와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의료원 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증권 노조 측에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108억)보다 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134억원으로 23% 뛰었다.

실제로 한양증권 임직원 대부분이 노조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양증권에 근무 중인 A씨는 “노조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투명한 처리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한양증권 직원들의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양증권은 임재택 대표이사의 취임 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안착시켰다. 이전까지 한양증권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채권매매와 파생상품 등 자기매매부문에 치중해 있었으나, 임 대표

는 부임 직후 사업구조 재편을 진행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진입하면서 창립 62년만에 부동산금융본부를 신설했다. 이후 부동산 PF 인력뿐만 아니라 FICC(채권·외환·상품 등) 사업에서의 우수 인력들을 다수 영입했다.

임 대표가 부임한 이후 한양증권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8년 1분기 당시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은 2699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4964억원으로 84% 성장했다. 증자나 자본증권 발행 등 별도의 자본증식 없이 이익금으로 이뤄낸 결과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1.7%에서 10.84%로 6배 이상 상승했다. 임 대표는 지난 3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4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철저한 리스크관리 역시 한양증권의 강점으로 꼽힌다. 증권업계가 부동산 PF 우발부채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양증권은 PF 우발부채 제로(0)를 자랑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광풍이 불었을 당시, 한양증권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PF 주선 업무에 역량을 쏟았다”며 “자기자본을 투자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해리스 수혜’ 의료용 대마株 강세 캐즘·고금리에 배터리株는 ‘글썸’

화일약품, 전날비 19.21% 급등
‘트럼프 트레이드’ HD현대건설기계
전일비 5.05% 하락세로 제동 걸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후 그 바통을 이어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용 대마주가 강세를 띤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화일약품은 전날보다 19.21% (308원) 급등해 191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일약품의 거래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사퇴를 발표한 22일(현지시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단적으로 한 달 전인 6월 24일 화일약품의 거래량은 17만 8180주에 불과했지만, 이날 거래량은 8285만 9157주를 기록했다.

화일약품의 주가 상승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한 발언과 관련이 깊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합법화를 추진하겠다”며 “마리화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말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연방 정부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화일약품은 201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의료용 대마 연구를 하는 ‘카나비스메디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의 센트럴 고등학교 행사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AP/뉴스시스

이 밖에도 국내에서 첫 대마 성분 화장품을 출시한 한국비엔씨는 전날보다 7.40% (470원) 오른 6820원에, 의료용 대마 재배와 대마 성분 연구에 대한 승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바이오는 전일 대비 0.37% (15원) 오른 4040원에 장을 마쳤다.

100일 남짓 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일리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다음 날인 22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유권자 4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

통령 지지율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론조사를 펼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6%p 우위를 점했지만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자 그 폭이 좁혀진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 포인트 앞지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제동이 걸리는지 지켜보는 모양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오름세를 보였던 HD현대건설기계는 2영업일 동안 하락하며 24일 종가는 전일 대비 5.05% 하락 6만 3900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배터리주도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전기차 업체들이 겪는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글로벌 고금리 여건으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에도 주가 부진은 계속되는 추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한 우려에 많이 피해를 본 그린산업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재생에너지 관련 주 중 단기 실적 모멘텀이 유호한 업체들은 저점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을 권고한다”면서도 “전기차·배터리 관련주들은 업황과 실적이 예상 대비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운용, ‘주택도시기금 전담’ 10주년

유일하게 3회 연속 선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10주년을 맞이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7월 제1기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7월 제2기, 2022년 7월 제3기 연속 선정됐다.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체계 최초 도입 이래 3회 연속 선정된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약 39%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운용역량과 경

쟁력을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주택도시기금 내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해 전담운용체계(OCIO)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38.87%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RISE ETF로 ‘워런 버핏’ 투자 따라잡는다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 10 ETF

K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할 시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 10’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보험사 겸 투자목적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고평가 이슈로 조정 받는 빅테크 기업 대비 다양한 사업영역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녔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올해 2월 상장된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 Top 10 ETF’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그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를 ETF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Solactive Berkshire Portfolio Top 10 Index’를 추종한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BRK.B)에 최대 27.5%를 투자하고 나머지 약 72.5% 비중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빅테크 기업인 애플을 제외하면 금융(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소비재(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즈), 에너지(셰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다양한 산업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각화한 덕분에 운용 수익률도 양호하다. 최근 1개월 6.29%, 3개월 16.24%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